

# 진안홍삼축제, 문화관광 육성축제 선정

### 전문가 컨설팅·한국관광공사 국내외 홍보 지원받아

진안군 대표 건강 힐링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 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안홍삼축제는 2016년 진안군 대표 축제 지정 3년 만에 문화관광 육성축제 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짧은 기간 명실상부한 전북 대표 우수축제로 자리잡은 진안홍삼축제는 2년 연속 20만명 이상 관람객 방문, 높은 만족도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진안홍삼축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진안홍삼만의 대표 콘텐츠 발굴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과 공감축제, 대표관광지 마이산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유일한 홍삼축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명품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9 진안홍삼축제는 '가자! 진안고원, 먹자! 진안홍삼, 놀자! 홍삼축제'를 주제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마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글로벌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대표 건강 힐링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장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장수군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말까지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금강 첫물 장수군, 세천지도 제작

장수군은 4월 체계적인 치수관리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장수군 '세천대장·세천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을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해 2월 15일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제외한 7개 읍·면의 세천 총 710개소 373km(약 1,000리)에 대해 세천명, 위치도, 시·종점, 연장 등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했다.

세천의 규정은 폭 1m, 길이 50m이상인 천이며, 제작된 세천대장과 세천지도는 치수관리 및 호우피해 사전 예방 등 각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번 천조사를 통해 물을 뜻하는 장수군의 지명처럼 710개의 세천이 천리, 185개의 하천이 천리, 뜬샘에서 시작된 금강의 물줄기가 천리로, 장수(長水)군의 지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장영수 군수 "장수군의 깨끗한 물, 긴 물줄기의 시작을 뜻하는 장수의 고유 브랜드인 '물'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천(川)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군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도 지역 안전도 1등급, 하천 제방분야 전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세천지도 제작을 통해 최우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청정무주, "장례문화도 환경을 먼저 생각"

###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 나서

### 식기류 비치... 이용 계약서에 반입 금지조문 기재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종이컵과 식탁보(생분해성 제품 활용)를 제외한 모든 식기(밥·국 그릇, 접시, 수저)를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조리 도우미(7개조 21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장례식장 조리실을 개선하는 등

의 구체적인 준비를 끝냈다.

식기세척기와 식크대 등 필요 장비와 식기류를 구입·비치하고 식기세척기 사용법 교육까지 마무리한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에 1회용품 반입 금지조문을 기재해 알리는 등 다회용품 사용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유성현 보건행정 팀장은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

제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구입하거나 상조회사에서 제공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군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만 5톤에 달했다"라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장례문화 조성도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무주가 앞장서야한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정착과 확산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친수 공간 조성해 자연재해 피해 막는다

### 5월까지 관내 37개 지방하천에 11억원 들여 정비

### 저지대 농경지 상습 침수 예방 및 영농편의 기대

진안군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우선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37개 지방하천에 11억 원을 들여 하천 내 수목 제거와 하도 준설, 호안정비 및 기성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237개 소하천 준설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

지 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제거하는 지방하천 유지 보수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11개 읍·면과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하

천 본래의 기능이 향상 돼 저지대 농경지 상습 침수와 수해 피해 예방 등 영농편익은 물론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의 친수 기능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주민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jmaeil.com



황인홍 군수가 4일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월례조회를 진행했다.

# 황인홍 군수 "군민들과 소통 가장 중요"

### 무주군, 3월 월례조회 진행

황인홍 무주군수가 4일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주' 실현을 위해 빈틈없고 발 빠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여전히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운을 댄 황 군수는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지혜를 모으고 해결을 위한 실행의지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며 "체감도 높은 군정실행을 위해 군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살피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농 철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농업용수 확보 등 제 때 농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것과 △산불예방,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재정 신속집행, △미세먼지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군민들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능여부와 추진상황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군수는 "전북이 전국 동계체육대회 4위 수성을 달성하는데 우리 군 출신 바이애슬론과 스키선수들의 역할이 컸다"라며 "4관왕으로 최우수선수상으로 받은 최은아 선수를 비롯해 전북의 위상을 드높여 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관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조기 치료를 권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환자다.

신청절차는 병·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및 처방전과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의 약제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을경 소장은 "이밖에도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료와 함께 진안군의료원,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